

2020년 3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온라인 기반 FANG 기업 상승 주도

국무부 “미 국민 모든 지역 해외지역 여행 금지” 발표 후 상승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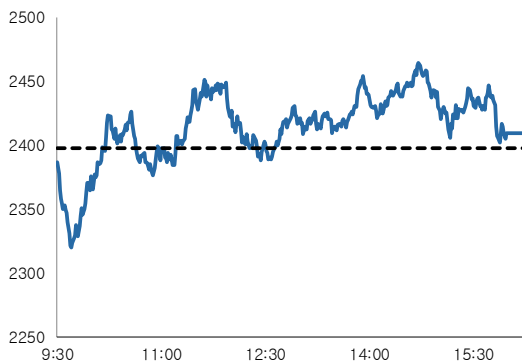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시장

미 증시는 ECB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출발. 한편, 온라인 기반 대형 기술주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상승을 주도해 나스닥의 강세는 뚜렷.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국무부가 미국민의 해외 여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 일부 반납(다우 +0.95%, 나스닥 +2.30%, S&P500 +0.47%, 러셀 2000 +6.82%)

코로나가 향후 고용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 시키는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향을 보임. 오늘도 ECB가 7,500억 유로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고 연준도 머니마켓 무추얼펀드 지원창구 시행을 발표했으나, 장 초반 미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과 경기침체 우려로 고용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며 하락. 특히 UN 사무총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확실하다.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결단력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라며 침체에 대해 경고한 점이 부담.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도 “글로벌 고용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2,4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각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할 경우 5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고용시장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발표한 점도 영향

그러나, 시장은 과거와 달리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경향을 보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으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FANG 기업들의 매출 둔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이끔. 여기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물론 반도체 업종들도 상승. 한편, 이번 사태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디즈니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회사들도 강세.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이르면 3월말(중국), 4월(미국)에 나올 것이라는 점에 기반해 관련 기업들 또한 상승. 이렇듯 과거와 달리 미국 시장 참여자들은 하나 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만, 아직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행보 속 개별 기업들, 업종내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1,457.64	-8.39	홍콩	항셱	21,709.13	-2.61
KOSDAQ		428.35	-11.71	영국		5,151.61	+1.40
DOW		20,087.19	+0.95	독일		8,610.43	+2.00
NASDAQ		7,150.58	+2.30	프랑스		3,855.50	+2.68
S&P 500		2,409.39	+0.47	스페인		6,395.80	+1.93
상하이종합		2,702.13	-0.98	그리스		525.29	+7.78
일본		16,552.83	-1.04	이탈리아		15,466.97	+2.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FANG 기업 상승 주도

알파벳(+1.88%), 페이스북(+4.20%), 아마존(+2.78%), 넷플릭스(+5.25%)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이 감소했으나,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경우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되며 상승했다. 시스코(+1.59%), 줌 비디오(+4.26%) 등 온라인 회의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들은 물론 어도비(+4.38%), 세일즈포스(+5.46%)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강세를 보였다. 디즈니(+6.90%)는 물론 라스베가스샌즈(+7.11%), 윈 리조트(+8.28%) 등 카지노 회사들, 유니온퍼시픽(+5.71%), CSX(+7.93%) 등 철도 운송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맥도날드(+8.89%), 움브랜드(+3.15%) 등은 대면 접촉 없이 드라이브스루 강화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엑손모빌(+3.96%), 코노코필립스(+12.88%) 등 에너지 업종이 급등했으며, 국제금리 하락에도 유가 급등으로 JP모건(+1.68%), BOA(+1.97%)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Moleculin Biotech(+38.56%)는 항 바이러스 효과가 월등한 물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존슨앤존스(-5.86%), 화이자(-6.00%) 등은 프랑스 보건부가 특정 진통제가 코로나를 악화 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자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6.56%	대형 가치주 ETF(IVE)	-0.65%
에너지섹터 ETF(OIH)	+12.39%	중형 가치주 ETF(IWS)	+1.11%
소매업체 ETF(XRT)	+5.48%	소형 가치주 ETF(IWN)	+5.07%
금융섹터 ETF(XLF)	+2.19%	대형 성장주 ETF(VUG)	+1.07%
기술섹터 ETF(XLK)	+0.36%	중형 성장주 ETF(IWP)	+1.8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6.24%	소형 성장주 ETF(IWO)	+5.02%
인터넷업체 ETF(FDN)	+3.29%	배당주 ETF(DVY)	-0.56%
리츠업체 ETF(XLRE)	-1.57%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7%
주택건설업체 ETF(XHB)	+5.0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7%
바이오섹터 ETF(IBB)	+2.78%	미국 국채 ETF(IEF)	+0.33%
헬스케어 ETF(XLV)	-2.05%	하이일드 ETF(JNK)	-2.27%
곡물 ETF(DBA)	+1.24%	물가연동채 ETF(TIP)	+1.94%
반도체 ETF(SMH)	+1.77%	Long/short ETF(BTAL)	-1.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192.08	+6.75%	-13.36%	-53.28%
소재	263.45	+2.22%	-3.13%	-30.75%
산업재	454.35	+0.33%	-7.32%	-35.76%
경기소비재	731.19	+3.40%	-4.62%	-30.24%
필수소비재	552.37	-2.91%	+2.86%	-16.65%
헬스케어	955.54	-1.87%	-3.03%	-20.57%
금융	323.22	+2.25%	-3.99%	-37.20%
IT	1,309.57	+1.11%	-0.72%	-26.57%
커뮤니케이션	145.02	+1.66%	+0.48%	-24.39%
유틸리티	262.00	-5.47%	-4.80%	-26.47%
부동산	177.68	-1.34%	-11.49%	-31.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공포 완화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4.11%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8%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3,365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6.60pt 급등한 204.1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5.0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뉴욕주 주지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수만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이후 투매가 출회되며 급락했다. 특히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 모두 매도하고 달러/원 환율이 1,300 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며 시장은 공포에 휩싸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이 종료된 이후 유럽장과 미국장에서는 이러한 악재성 재료를 뒤로하고 ECB 와 연준의 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을 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한국을 비롯해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던 호주 등 9 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통화 안정을 추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금융위기 당시보다 2 배 규모인 600 억 달러라는 점에서 환율 안정이 기대된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공포에 휩싸인 금융시장 안정 가능성은 높다. 더불어 오늘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등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경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1, 2 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연준은 회사채 매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시사한 점은 공포를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공포 보다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코로나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

미국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1 만건)을 상회한 28.1 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여파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 했음을 시사한다. 2 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으며 지난달 발표치(+0.7%)를 하회했다. 한편, ECRI 가 발표하는 주간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 13 일 발표치가 -2.0 으로 둔화된 점을 감안 향후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36.7)이나 예상(14.0)을 크게 하회한 -12.7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33.6 → -15.5)로 급감하고 고용지수(9.8→4.1), 재고지수(11.8→1.7) 등도 감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사상 최대 상승폭인 24% 급등

국제유가는 미국이 사우디, 러시아와 최근 원유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 또한 유가 급등의 요인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연준이 9 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나, 여전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ECB 의 국채 매입 발표를 했지만 이 또한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2%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영향을 줬다.

국채금리는 코로나가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 했음을 보여준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증하자 하락했다. 더불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 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진행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그리스 국채금리는 ECB 가 그리스 국채 매입도 발표한 데 힘입어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가 140bp 나 급락한 점도 특징이다.

금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 악화 우려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ECB 의 조치로 인해 일부 품목은 반등을 주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5.22	+23.81	-19.94	Dollar Index	102.702	+1.52	+5.37
브렌트유	28.47	+14.43	-14.30	EUR/USD	1.0704	-1.93	-4.30
금	1,479.30	+0.09	-6.98	USD/JPY	110.6	+2.33	+5.70
은	12.134	+3.08	-24.19	GBP/USD	1.1517	-0.78	-8.38
알루미늄	1,630.00	-1.21	-1.57	USD/CHF	0.9851	+1.73	+4.38
전기동	4,825.00	+1.69	-11.31	AUD/USD	0.5748	-0.43	-7.83
아연	1,847.00	+0.05	-4.70	USD/CAD	1.4489	-0.10	+4.05
옥수수	345.50	+3.06	-5.54	USD/BRL	5.0998	-0.18	+6.37
밀	535.00	+5.26	+5.84	USD/CNH	7.1576	+1.17	+1.85
대두	843.25	+2.15	-1.89	USD/KRW	1285.70	+3.21	+6.56
커피	112.70	+4.06	+3.54	USD/KRW NDF1M	1255.06	+0.08	+3.8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39	-5.28	+33.45	스페인	0.875	-34.10	+36.90
한국	1.670	+16.00	+29.50	포르투갈	1.080	-36.10	+35.90
일본	0.083	+0.20	+14.00	그리스	2.406	-139.60	+36.90
독일	-0.193	+4.20	+54.80	이탈리아	1.737	-69.10	-2.00